

신라 하대 선종 사원과 철불

Zen Buddhism Temple and Iron Buddha in the Late Period of Silla

저자
(Authors) 정동락
Jung, Dong-lak

출처
(Source) [한국고대사탐구 27](#), 2017.12, 57-102(46 pages)
[Sogang Journal of Early Korean History 27](#), 2017.12, 57-102(46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고대사탐구학회](#)
Society for the Study of Early Korean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94072>

APA Style 정동락 (2017). 신라 하대 선종 사원과 철불. 한국고대사탐구, 27, 57-10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30 15:52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 하대 선종 사원과 철불

정 동 락*

- I. 머리말
- II. 선종의 융성과 선종 사원의 성립
- III. 가람구조의 변화
- IV. 철불 조성과 그 배경
- V. 맺음말

【국문초록】

신라 하대인 9세기 초반 중국으로 유학을 떠났던 初傳僧이 귀국하면서 선종이 전래되었다. 이후 북으로는 北山(설악산), 남으로는 南岳(지리산)에 이르기까지 선종이 확산되면서 융성하였다. 선종 사원의 성립은 사상적, 인적, 물적 기반이 종합적으로 연결된 시대적 산물이었고, 그 중심에는 선종 사원이 존재했다.

선종의 융성은 사원의 가람구조 변화를 견인하였고, 새로운 불교 조형물을 창안하였다. 먼저, 이전의 가람구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祖師堂이 건립되었다. 다음으로, 조사와 제사 사이에 상당설법과 선문답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法堂과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인 僧房이 중시되었다. 그리고 僧塔과 僧塔碑라는 새로운 조형물을 창안하였다.

신라 하대는 금당에 봉안하는 불상의 변화도 나타나 철불이 급격히 확산되었다. 철불을 제작한 승려는 입당유학한 선승이 대부분이었다. 철불은 주로 盧舍那佛이었는데, 教禪並立의 사상 경향이 반영되었다. 철은 금동을 대신하는 대체품의 성격을 지녔고, 경제적인 효용성도 높았다. 철불은 신라하대 철 생산력과 불상 제작 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선종이라는 새로운 사상이 창출한 시대적 결과물이었다.

주제어 : 신라하대, 선종, 사원, 가람구조, 철불

* 대가야박물관

I. 머리말

신라하대인 9세기 초반 중국으로 유학을 떠났던 道義와 洪陟선사 등 초전승이 南宗禪의 선맥을 이어 받아 본국으로 돌아왔다. 뒤이어 입당 유학승이 대거 귀국하면서 북으로는 北山(설악산), 남으로는 南岳(지리산)에 이르기까지 신라 전역으로 선종이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실상산문과 가지산문 등 소위 9산선문이 개창되었고, 기왕의 교종에서 선종으로 사상적 전환이 이루어졌다.¹⁾

신라하대 선승들은 기존 불교계에 대한 비판의식과 사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선종이 가지는 혁신성에 주목했다. 불교사상의 근본적인 문제인 깨달음(悟)에 도달하는 공부(修行) 방법상의 전환과 교학에 대한 비판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佛說에 의지해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인간 존재 자체에 주목하고 스스로의 수행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방안을 모색했다. 계율의 수지와 경전의 주석을 추구하던 것에서 절대적인 자아 발견을 위한 실천을 추구했고, 집단적인 강론과 의례보다는 개별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에 주목했다. 자신에게 내재된 佛性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개별성·다양성·실천성을 강조하여, 전체 속에서 개인의 존재성을 자각하기에 이른 것이다.²⁾ 또한, 중앙의 통

-
- 1) 鄭東樂, 「新羅下代 禪宗史 研究動向」 『韓國古代史探究』 7, 2011a.
 - 2) 高翊晉, 『韓國古代 佛教思想史』, 東國大出版部, 1989 ; 추만호, 『나말려초 선종사상사 연구』, 이론과 실천, 1992 ; 鄭性本, 『新羅禪宗의 研究』, 民族社, 1995 ; 조범환, 『新羅禪宗研究—朗慧無染과 聖住山門을 중심으로—』, 一潮閣, 2001 ; 김두진, 『고려전기 교종과 선종의 교섭사상사 연구』, 일조각, 2006 ; 김두진, 『신라하대 선종사상사 연구』, 일조각, 2007 ; 최인표, 『나말려초 선종정책 연구』, 한국학술정보(주), 2007 ; 曹凡煥, 『羅末麗初 禪宗山門 開創 研究』, 景仁文化社, 2008 ; 鄭東樂, 『新羅 下代 禪僧의 現實認識과 對應』,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2010. ; 조범환, 『羅末麗初 南宗禪 研究』, 일조각, 2013

제 아래에 있던 교단이, 수행과 일상의 삶이 일체화된 자율적인 승단 운영으로 전환되었다. 신라하대 선종으로의 사상 전환은 신라사회를 유지해온 骨品制라는 신분제를 바탕으로 한 획일성과 전체성을 극복하고,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多元的인 성격의 고려사회로 진전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 시기 선종을 ‘中世 知性’으로 평가한 견해³⁾는 경청할 만하다.

흔히 인간이 창출한 모든 물질문화는 꽃에 비유된다. 사상과 정신은 그 뿌리에 해당한다. 신라하대 선종이라는 뿌리가 어떤 형태의 불교문화라는 꽃을 피웠는지를 구체적으로 추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신라하대 선종의 융성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것이 사원의 가람구조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검토한다. 아울러, 불교 조형물 중 대표적인 신앙과 예배의 대상이었던 불상에는 어떻게 작용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⁴⁾ 선종의 융성이 가람구조와 불교 조형물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문화 변동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불교문화를 창출한 양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II. 선종의 융성과 선종 사원의 성립

1. 선종의 융성

신라하대 선종의 전래는 불교 사상계의 커다란 변화상을 이야기하는 일대 사건이었다. 孤雲 崔致遠⁵⁾이 찬한 智證선사 道憲(824-882)의 비문(이

3) 金哲俊, 「羅末麗初의 社會轉換과 中世知性」 『創作과 批評』 겨울호, 1968 ; 金哲俊, 『韓國古代社會研究』, 知識産業社, 1975.

4) 선종의 전래로 야기되는 가람구조의 변화와 철불 조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본문의 서술과정에서 언급키로 한다.

5) 金福順, 『新羅華嚴宗研究』, 民族社, 1990 ; 金福順, 「최치원의 종교관」 『신라

하 「도헌비」)에는 당시까지의 불교사는 물론 선종에 대해서도 정리해 놓았다. 최치원은 신라 불교사를 삼국 이전(소승불교), 삼국시대 후반과 통일신라 중기(대승불교의 교학과 계율), 신라하대(선종의 전래)로 구분해 놓았다.⁷⁾ 그 중 선종의 전래와 확산을 자세하게 언급하여 불교계의 주도권이 교종에서 선종으로 전환되었음을 명확히 했다. 특히, 선종사의 재정립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 자신이 생존하던 당시의 선승들을 입당 구법승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최치원은 선종의 초전승으로 도의와 홍척을 지목했다. 선종의 시작은 法朗을 이은 神行선사(704-779)가 중대 말인 760년(경덕왕 19) 경 北宗禪을 전한 것에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⁸⁾ 도의·홍척의 초전승 인식은 ‘南宗禪’ 중심의 선종사 인식이라 할 수 있다. 도의와 홍척은 초전승으로 평가되지만, 그들의 역할과 행보에는 차이가 있었다. 도의는 처음으로 ‘오묘한 선법(玄契)’을 전했고, 홍척은 선종의 융성을 이끌었던 선승으로 평가하였다. 도의가 魔語로 비난받고 북산의 북에 은거한데 비해, 홍척은 남악에 머물면서 신라 왕실의 후원을 이끌었다. 「도헌비」에는 흥덕왕과 宣康太子(김충공)가 “나라를 평안케 했다.”고 기술하였다. 홍척이 왕실의 지원을 받고 선종의 공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선종의 공인과 융성은 신라

최고의 사상이 최치원 탐구』, 한국사학회·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편, 주류성, 2001 ; 장일규, 『최치원의 사회사상 연구』, 신서원, 2008 ; 曹凡煥, 「新羅下代 儒學者의 禪宗 佛教 認識 - 崔致遠의 四山碑銘과 관련하여 - 」 『韓國禪學』 2, 2001.

- 6) 이하 인용한 선승 비문은 韓國古代社會研究所,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3권,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 李智冠,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新羅篇·高麗篇1, 伽山文庫, 1993·1994 ; 한국역사연구회, 『譯註 羅末麗初金石文』 上·下, 혜안, 1996을 참조했다. 서술의 편의를 위해 「○○비」로 약칭한다.
- 7) 許興植, 『高麗佛教史研究』, 一潮閣, 1986, 113~116쪽.
- 8) 呂聖九, 「神行의 生涯와 思想」 『朴永錫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上, 탐구당, 1992 ; 추만호, 앞의 책, 1992 ; 정선여, 「신라 하대 북종선의 동향」 『新羅史學報』 18, 2010.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것으로 파악했다. 홍척의 증취는 “닭으면서도 닭음에 매몰되지 않는 修乎修沒修와 증득함에 매몰되지 않는 깨달음인 ‘證乎證沒證’을 강조하고, ‘無爲의 法’이 유익하여 다투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고 하였다. 도의의 선풍이 기존 불교계와 대립적이었다면, 홍척은 그를 포용함으로써 대립과 갈등의 소지를 극복했던 것이다.⁹⁾ 둘의 선풍 차이를 뚜렷이 인식할 정도로 선사상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

한편, 선승에 대해서는 서학을 기준으로 ‘서학과’와 ‘국내과’ 등으로 구분하였다. 서학과는 세분하여 중국에서 입적한 경우(西化)와 신라로 다시 귀국한 경우(東歸)로 나누었다. ‘서화’한 선승으로는 정중사의 無相 등 4인, ‘동귀’로는 북산의 도의와 남악의 홍척, 시대를 조금 내려와서 大安寺의 慧徹국사와 慧目山の 玄昱, 雙溪寺의 慧昭, 雙峰寺의 道允, 岫山寺의 梵日, 兩朝국사인 聖住寺의 無染 등 12인(혹은 13인)을 적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현을 “彼岸(서역이나 중국)에 가지 않고도 깨달음을 얻은 선승”로 언급하였다. 신라하대는 입당유학이 다른 어떤 시기보다 왕성했던 소위 ‘서학의 전성기’였다. 그는 국내과였던 도현의 비문을 찬술하면서도 입당 구법승 중심으로 정리하여 서학승을 중시했다. 다만, 도현을 국내과 선승으로 평가한 점도 주목된다. 도현과 같은 국내과 선승의 존재는 선종이 정착했음을 의미한다.

선종의 정착과 신라화는 ‘佛法東流說’과 ‘西學不要論’으로 나타났다. 무염은 馬祖 道一의 제자인 如滿과 麻谷 寶徹로부터 심인을 받았다. 여만은 무염을 두고 “중국에서 선법을 잃으면 東夷에서 물어야 할 것”, 보철은 “불교의 東流之說은 이미 鈎識에서 나온 말로 무염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 했다. 최치원은 중국 선승의 언급을 토대로 “마조가 용의 새끼를 길렀고, 東海가 西河를 뒤덮었다.”고 평가하였다. 동해는 신라, 서하는 중국

9) 정동락, 「洪陟禪師의 南宗禪 전래와 현실대응」 『新羅史學報』 22, 2011b, 360~361쪽.

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해동의 무염이 불법에 있어서 도일을 능가하였다.”¹⁰⁾는 의미로, “신라의 선풍이 중국을 압도했다.”¹¹⁾는 표현에 다름 아니다.

‘불법동류설’은 심희로 대표되는 국내파 선승에 의해 서학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인 ‘서학불요론’으로 진전되기도 했다. 불법동류설은 선종의 정수가 서쪽(중국)에서 동쪽(해동, 신라)로 옮겨 왔다는 인식으로, 신라 선종이 正法安藏의 정통을 계승했다는 자부심을 담고 있는 주장이다.¹²⁾ 서학불요론은 불법동류설을 토대로 선종의 정통이 신라로 왔으므로 굳이 서학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주로 국내파 선승들이 내세웠다.¹³⁾ 신라 선종에 대한 자각이자, 자긍심의 표현으로 신라사회에 선종이 정착했음을 증언한다.

「도헌비」에는 선승을 언급할 때 주석한 사원(산문)과 함께 병기하였다. 北山 義, 南岳 陟, 大安 徹國師 등과 같은 방식이다. 「도헌비」에 제시된 산문과 승려는 당시의 대표적인 禪刹과 선승으로 봐도 무방하다. 북산(진전사)의 도의와 남악(실상사)의 홍척, 시대를 조금 내려와 대안사의 혜철국사와 혜목산의 현욱, 智力 聞, 쌍계사의 혜소, 新興 彦, 涌巖 體, 珍無 休, 쌍봉사의 도운, 굴산사의 범일, 양조국사인 성주사의 무염 등이었다. 그 중 지력사의 문 선사, 신흥사 언 선사, 용암사의 체 선사, 진무사 휴 선사 등은 자세한 행적을 알 수 없다. 나머지는 선문의 개산조 혹은 개창조에 해당한다. ‘지력사의 문 선사’ 등도 그에 준하는 사원과 선승으로 보인다. 신라하대 선종사를 파악하는 방법론으로 ‘9산선문설’이 큰 틀로 이용되어 왔지만 논란이 적지 않다.¹⁴⁾ 최치원이 「도헌비」를 찬할 당시만 하

10) 정성분, 앞의 책, 1995, 78쪽 ; 조범환, 앞의 글, 2001, 169쪽.

11) 朴胤珍, 「신라말 고려초의 佛法東流說」 『한국중세사연구』 21, 2006, 229쪽.

12) 박윤진, 위의 글, 2006, 224쪽.

13) 정동락, 「신라하대 國內派 禪僧의 西學認識」 『民族文化論叢』 55, 2013, 466~467쪽.

더라도 9산선문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하대 선문의 조사들은 신라 전역의 거점 지역에 주석하였다. 선승들은 자신의 교화력을 바탕으로 왕실과 귀족에서부터 지방민에 이르기까지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지지와 협찬을 받았다. 「도헌비」에서 “덕이 두터워 중생의 아버지가 되고 도가 높아 왕자의 스승이 되었다.”는 표현은 그 단적인 평가이다. 선승들의 계율을 지키는 검소한 생활 모습, 문인과 일반 신도를 평등하게 대우하는 평등성 지향, 술선수범하는 수행자로서의 모범, 실천 노동을 통한 자급자족적인 교단운영 등은 당시 사회에 깊은 감명을 주었다. 선승들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교화력을 발휘했다. 엄격한 고품제의 틀 속에서 각종 특권을 누리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지배층과 불교계의 풍토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당시 사람들은 선승의 자세에서 이상적인 승려상을 발견하고 깊이 공감했다. 선종의 개혁적인 성격을 높게 평가하였고, 불교계는 물론 사회 개혁의 모범으로 삼기를 희망했던 듯하다.

2. 선종 사원의 성립

선종이 신라하대 사회를 주도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요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이었다. 첫째, 인적 요소인 선종 승려가 증가하고 성격도 다양화되었다. 입당유학 뒤 귀국한 초전승과 선문 개산조(개창조)가 등장하였고, 선승의 구성도 다양해졌다. 그 중에도 대체로 서학과 선승들이 중시되었다. 서학파는 국내로 귀국한 부류와 중국에서 입적한 선승으로 나누어 졌다. 선종이 정착하면서 유학하지 않은 국내파 선승들이 등장하였다. 국내파의 존재는 선종 승려를 국내에서도 배출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음을 의미한다. 중국 선종에 대응하는 신라 선종이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

14) 정동락, 앞의 글, 2011a, 220~221쪽.

는 증거이다. 이 시기의 선종은 南宗禪(祖師禪)으로, 조사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된다. 조사→제자→수제자로 이어지는 선문의 계보가 형성되었고, 법계의 분화로 이어져 사상적 활력을 불어넣었다.

둘째, 선종을 흥포하기 위한 기반인 사원이 확보되었다. 사원은 선승들의 수행과 강론·의식 등을 위한 수도처이자, 신도층을 위한 신앙과 의례의 중심공간이었다. 821년 귀국한 도의는 북산인 진전사로 은거하였고, 826년 경 귀국한 홍척이 실상사를 창건하면서 본격적인 선종 산문이 성립하였다. 선종 사원은 기존의 교종 사찰을 선종으로 전환시킨 경우, 선사가 절터를 물색해서 창건한 경우, 지방세력의 원찰을 선종 사원화 한 경우, 왕족의 원찰을 회사받아 선종 사원으로 삼는 경우, 국왕의 교지로 기존 사원을 선종 사원으로 바꾸는 경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보되었다.¹⁵⁾ 기존의 교종 사원을 선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며, 새롭게 창건하는 경우는 비중이 낮았다. 선종 사원은 지역적으로 북산(진전사)에서부터 남악(실상사)에 이르는 9州 전역으로 확산되었다.¹⁶⁾

선승들은 참선하기 적당한 곳에 정착하는 경향이 강했다. 대안사는 세속의 무리들로 오는 이가 드물고 경계가 그윽해 승려들이 머물기에 적합하였으며,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삼한의 수승한 곳’이었다. 쌍계사는 ‘항아리 속의 별천지’, 흥녕사는 ‘해동의 佳境이며 천하의 福田’, 석남산사는 ‘선을 닦기 좋은 가경’, 옥룡사는 ‘참선하기에 알맞은 성지’로 평가되었다. 선종 사원이 급속히 증가하여 이 시기 창건 사원의 절반 이상을 점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⁷⁾

선종이 확산되면서 선종 사원과 그곳에 머무는 승려의 수도 급속하게

15) 한기문, 「新羅末 禪宗 寺院의 形成과 構造」 『韓國禪學』 2, 2001, 270~271쪽.

16) 장일규, 「신라 말 고려 초 禪僧의 시기별·지역별 활동 추이와 山門 형성 과정」 『신라사학보』 39, 2017.

17) 한기문, 위의 글, 2001, 278~280쪽.

늘어났다. 선찰 내에는 수백에서 수천의 승려와 속인이 머물기도 했다. 사원의 규모도 그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나갔다. 비록 후대의 자료이지만, 고려 태조 때 태안사는 금당을 비롯해 모두 126칸의 건물이 있었다. 935년(태조 18) 靜眞 兢讓 당시 봉암사는 9개소의 불전, 17개소의 요사, 15개소의 누각과 낭무가 기록되었다. 성주사에는 불전 80칸, 행랑 800여칸, 水閣과 庫舍 60여 칸이나 있었다.

셋째, 선종 사원의 운영을 위한 물적 토대인 경제력을 갖추었다. 당시의 경제 기반은 대체로 토지와 노비였다. 선종 산문의 토지는 기존의 사원에서 소유한 토지를 계승하거나, 왕실과 단월 또는 승려의 기진 등으로 집적되었다. 보림사는 元表大德이 거쳐할 때 설치된 長柱標가 있었는데, 체징이 머물면서 그 토지를 계승했다. 성주사에도 放生境界를 표시했고, 安樂寺에 농장과 토지가 희사되자 別墅로 표시하고 禁殺標로 구획하였다. ‘標나 ‘界’는 사원 소유 토지에 대한 경계 표시이자, 국가로부터 면세권을 인정받는 조치였을 가능성이 높다. 872년(경문왕 12) 작성된 「혜철비」 끝 부분에는 대안사의 田民이 기록되었다. 당시 대안사의 소유 田畝는 494결 39부이며, 柴地는 143결, 鹽盆이 43결이었고 奴 10口, 婢가 13구였다. 도헌은 867년 자신의 사재인 莊 12區와 田 500결을 사원에 헌납했다. 고려 태조는 雲門寺의 寶壤화상에게 田 500결을 시납했다. 신라하대 9산산문의 본산에 해당하는 사원은 대체로 500결 정도의 전지를 소유했고, 수십에서 수백의 田民이 해당 토지를 경작했다. 장원에는 莊舍를 두고, 知莊이 파견되어 경작을 관리기도 했다.

신라하대 선종 산문은 선승의 사승관계를 중심으로 한 종적인 법맥으로 연결되었고, 소속 사원과 소유 토지를 횡적으로 결합하여 형성되었다. 소위, 9산산문의 성립은 선종의 사상적, 인적, 물적 기반이 종합으로 연결된 역사적 산물이었고, 그 중심에는 선종 사원이 자리했다.

Ⅲ. 가람구조의 변화

1. 祖師堂의 건립

선종의 수용과 융성은 사원의 변화를 견인하였다. 그 구체적인 양상은 가람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불교 조형물의 등장이었다. 신라중대까지 기본적인 가람구조는 중문-탑-금당-강당, 회랑으로 이루어졌다. 신라시대 선종 사원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사찰에는 없던 새로운 건물이 속속 건립되기 시작했다. 조사당의 등장, 법당·승당의 확장, 승탑과 탑비의 건립 등이 대표적인 변화상으로 지적되었다.¹⁸⁾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祖師堂의 건립이다.

신행선사는 중국에 유학하여 북종선 神秀의 법손인 志空의 법을 잇고 귀국해 교화활동을 벌이다가 779년(혜공왕 15) 斷俗寺에서 입적하였다. 813년(헌덕왕 5)에 선사를 현창하기 위해 영정을 그리고, 승탑과 탑비를 건립했다. 이때 영정을 모시기 위한 영당을 건립했을 것이다. 영당은 한 종파의 조사나 사찰의 개조, 혹은 이름난 승려의 영정을 모신 사당으로 조사당과 같다. 선종 사원에서 처음 조사당을 건립한 곳은 단속사였다. 뒤이어 도의, 흥척, 혜소 등 남종선의 선사들의 귀국하면서 건립이 본격화된다.

혜소는 三法화상의 遺址에 옥천사(쌍계사)를 창건하고, 六祖 慧能의 영당을 건립하였다. 삼법화상은 金大悲와 함께 六祖頂相을 훔쳐와 화개곡에 옥조정상탑을 세운 인물이었다. 혜능의 頂相을 신라인이 취해 가져간다는 取首讖은 중국에 널리 퍼져있었고, 중국에서 선종이 끊어지면 해동에 물어야 한다는 위기감이 조성되었다.¹⁹⁾ 혜소는 이러한 장소에 혜능의 영당을 건립하고, 남종선을 널리 전하는 방편으로 삼았다. 자신이 중국 선

18) 조범환, 「新羅 下代 僧侶들의 入唐 留學과 禪宗 佛教 문화의 擴散」 『韓國思想史學』 40, 2012 : 조범환, 앞의 책, 2013, 272~277쪽.

19) 김두진, 앞의 책, 2007, 104쪽.

종의 정수를 계승했고, 쌍계사가 그 적통을 계승한 선찰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무염은 845년 중국에서 귀국해 847년 무렵 聖住寺를 창건했다. 「무염비」에는 金立之가 찬한 「성주사비」가 약술되어 있다. 이곳에는 무염의 입당과 귀국, 구족계 수계와 깨달음을 얻은 연기, 귀국 뒤 왕공귀족에게 존숭을 받은 일, 불전과 영당을 창건한 내용 등이 기술되어 있었다. 「무염비」에서 ‘像殿(像堂之開闢)’이라고 ‘불전’과 ‘영당’을 대귀로 배치 한 점이 흥미롭다. 불상을 모신 불전과 영당을 동일선상에서 서술해, 조사당을 가람구조 내에서 불전과 대비되는 구성요소로 인식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성주사비」의 비편이 확인되어, 영당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성주사비」에는 佛殿(金殿)을 건축하고 ‘七祖師堂’을 건립했다는 구절이 보인다.²⁰⁾ 이는 「무염비」의 ‘영당’이 분명하다. 칠조사당의 주인공은 淨衆 無相선사라고 한다.²¹⁾ 무상은 신라 출신의 선승으로 무염이 법을 이은 마조도일의 스승이었고, 신라 선승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무염은 당나라에서 이뤄진 육조 현창의 유풍을 본받아 칠조사 영당을 건립했다. 선종을 효율적으로 전하고, 성주사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었다.²²⁾ 혜소가 중국 선승인 혜능의 조사당을 건립했다면, 무염은 신라 출신인 무상선사의 영당을 세웠다. 점차 중국에 대응하는 신라 선종의 조사를 중시하는 방향성이 엿보인다.

초전승의 문하에서 2·3세대 선승이 배출됨에 따라 중국에 대응한 신라 선종의 계보를 새롭게 창안하기에 이른다. 「체징비」에 “達磨는 당나라의 제1조가 되었고, 우리나라는 도의대사를 제1조, 염거선사를 제2조로 삼

20) 梁承律, 「金立之의 『聖住寺碑』」 『古代研究』 6, 1998, 31쪽 ; 조범환, 앞의 책, 2001, 78쪽.

21) 양승율, 위의 글, 1998, 87~88쪽.

22) 조범환, 앞의 책, 2001, 79~81쪽.

고, 우리 스님(체징)을 제3조로 한다.”고 천명하였다. 도의를 비롯한 신라 선종의 조사를 모신 조사당을 본격적으로 건립할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眞空 □運은 870년 중반 경 진전사에 와서 도의의 유적을 참례했다. 승탑에 예를 올리고, 진영을 추모하면서 제자의 예를 올렸다. 자신이 도의 선사의 적통을 계승했음을 내세우고, 도의-진공으로 이어지는 법계를 주장했다. 이는 도의-염거-체징으로 이어지는 보림사의 體澄系와는 다른 새로운 법맥이었다.²³⁾ 가지산문의 본산에 해당하는 진전사에는 도의선사의 승탑과 진영을 모신 건물 즉 영당(조사당)이 존재했다. 朴仁範이 찬한 「범일국사진영찬」을 보면, 범일은 국사로 추증되었고 진영도 그렸다. 굴산문의 본산에 개창자인 범일의 진영을 모신 조사당이 존재했다. 보양선사는 중국에 유학한 뒤 귀국해 推火郡(밀양)의 奉聖寺에 머물다가, 鵲岬寺를 중창하여 雲門禪寺로 사액을 받았다. 봉성사에는 태조와 보양의 진영을 봉안했으므로, 조사당이 건립되었음이 분명하다. 선사의 진영 제작은 고려 초 兢讓(878-956)의 사례가 자세하다. 공양은 956년(광종 7) 유훈을 남기고 입적하였다. 광종은 諡號塔銘使를 보내 ‘靜眞大師 圓悟之塔’을 하사하고, 有司에게 명하여 眞影 1폭을 金軸으로 그리고, 사신을 파견하여 진영을 운송해 齋를 설하는 등 장례를 지원했다. 시호·탑호 하사와 함께 진영이 제작되었고, 진영각이나 조사당에 봉안했을 것이다.

진영 제작이 확인되는 선승은 신행, 도의, 범일, 보양, 利觀, 공양, 璨幽, 坦文 등이다. 아마, 단속사, 진전사, 굴산사, 봉성사, 사림원, 봉암사, 고달원, 보원사 등에는 진영을 모신 조사당이 건립되었을 것이다. 보원사의 탄문을 제외하면 모두 선종 승려와 사원이다. 9산선문의 중심 사원에는 개산조나 개창조들의 진영을 모신 조사당이 있었다. 선종 전래 초기에는 대체로 혜능과 무상 등 중국 선승의 조사당이 건립되었다. 도의와 혜소,

23) 정동락, 「眞空(855-937)의 생애와 사상」 『한국중세사연구』 26, 2009.

범일 등 초전승이 입적한 뒤에는 신라 선승을 기리는 조사당이 본격화되었다. 선종 사원의 가람구조에도 조사당이 새로운 공간을 구축해 나갔다. 선승에 대한 존승이 강화되었고, 부처를 모신 금당 등 佛殿에 대응하는 조사들의 영당이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조사당의 등장은 ‘부처’에 대응한 ‘조사’의 중시라는 인식 전환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 法堂과 僧堂의 신축과 확장

신라하대 전래된 남선종은 흔히 조사선이라고 한다. 조사선의 특징은 실천적인 측면에서 直指人心과 見性成佛이다. 스승의 가르침은 상당설법과 선문답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마음을 가리켜 주고, 제자는 行脚과 參問을 통해 수행하는 실천 형태이다.²⁴⁾ 조사와 제자 간에 상당설법과 선문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바로 法堂이었다. 『선원창규』에 의하면 법당은 一山の 주지가 부처를 대신하여 上堂說法하는 곳으로, 선종 가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전각이다. 기존의 교종에서 금당(불전)에 해당한다. 僧房은 산문의 승려들이 머물면서 수행하는 일상적인 생활공간이다. 법당과 승방은 설법과 수행,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이었다.

혜소는 쌍계사에 머물면서 선종을 알리기 위해 梵唄를 활용했다. 배우려는 사람이 堂에 가득 찼으나 권태로워 하지 않았다. 무염선사도 學僧을 禪師라 불렀고 손님을 맞이할 때에는 신분의 고하를 따지지 않아, 제자들이 즐거이 따랐다. 또, 배우러 온 자들에게는 의심나는 것을 묻게 하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참문과 설법이 이루어졌다. 혜소가 범패를 가르친 공간은 ‘學者滿堂’, 무염선사가 학생과 선문답을 펼친 모습을 ‘滿堂慈悲’이라고 표현했다. ‘堂’은 곧 법당이었을 것이다. 범일의 경우에는 제자들과

24) 김태완, 『조사선의 실천과 사상』, 장경각, 2001.

즉문즉답의 형태로 선문답이 이뤄졌다. 자신이 가르침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자인 개청으로 하여금 法主의 역할을 수행케 했다. ‘法主’라는 표현으로 보아 법당이었을 것이다. 성주사에는 5層 重閣의 選法堂, 태안사에도 3칸의 선법당, 봉암사에는 說法殿이 있었다. 집회와 설법이 이뤄진 법당일 것이다.

선종 사원에는 선사의 가르침을 받은 수백에서 수천의 문하승들이 배출되었다. 무염의 문하제자로 이름이 알려진 자가 근 2천명이 넘었다. 또, 성주사에 소속한 사원에 따로 떨어져서 도량을 개설한 인물도 僧亮·心光 등 4명이 있었다. 그 문하에서 배출된 손제자들도 구름처럼 운집했다. 절 중의 문하제자는 如宗·弘可 등 1,000여 명이 넘었다. 체징은 英惠·淸奘 등 800여 명의 제자가 있었다. 심희·여엄·충담·행적·찬유는 500여 명, 비로암 진공대사는 400여 명, 현휘는 300여 명, 혜철·홍준 등은 100여 명의 제자가 있었다. 선종 사원에 다수의 선승이 거주하는 대집단화가 시대적인 조류였다. 물론, 선승의 많은 문하 제자들이 모두 한 사원에서 생활했다고 볼 수는 없다. 성주사의 경우 별도로 사찰을 주재하는 이로 4명을 거명하였다. 이들이 주석하는 사찰은 성주사의 末寺 또는 屬寺였을 것이다. 수백명 이상의 승려를 수용하기 위해 사원 내에 별도의 건물을 마련하거나, 본사에 소속한 末寺 또는 屬寺에 제자들을 수용했을 것이다.²⁵⁾

선종 사원 내 다수의 선승과 신도들이 거주하는 공간은 승방이었다. 후대의 자료이지만, 성주사에는 內僧堂 9칸, 住室 7칸 등 16칸이 확인된다. 태안사는 僧堂 4칸, 維那房 9칸, 上院主廳 3칸, 藏主房 2칸, 入室房 4칸, 別監房 3칸 등 25칸이 거주시설로 보인다. 봉암사에는 東上室, 西上室, 內僧堂, 外僧堂, 內禪堂, 外禪堂, 東方丈, 西方丈, 左侍事, 右侍事, 涵虛堂, 侍者寮, 中位堂, 海會堂, 省行堂, 延壽堂 등 17개소의 요사가 있었는데, 구

25) 한기문, 앞의 글, 2001, 281~282쪽.

모는 5칸에서 30칸에 이르렀다. 승당이나 요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점은 사원에 머무는 僧俗의 수를 짐작케 한다.²⁶⁾

법당이나 승방의 구체적인 존재 양상이나 규모는 확인이 쉽지 않다. 선승비에는 ‘법당의 사례가 제법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언급된 경우는 경유, 여엄, 개청, 이엄, 진공, 홍준 등이다. 경유는 921년(태조 7) 日月寺 법당, 여엄은 930년 菩提寺 법당, 개청은 930년 普賢山寺 법당, 이엄은 936년 五龍山寺 법당, 진공대사 □운은 937년 小伯山寺(비로암) 법당, 홍준은 939년 龜山寺 법당에서 입적했다. 일월사를 비롯해, 보리사 등의 사찰에는 법당이 존재했다. 대체로 후삼국시대 이후에 해당하는 선승들이었다.

법당으로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체징은 880년(헌강왕 6) 제자들에게 유훈을 남기고 보림사의 上房, 무염은 888년(진성왕 2) 가부좌한 채 입적했는데, 문인들이 유체를 받들어 임시로 禪室에 빈소를 정했다. 범일은 889년(진성왕 3) 굴산사의 上房, 행적은 916년(신덕왕 5) 石南山寺에서 ‘繩床에 가부좌’를 하고 입적했다. 심희는 923년(경명왕 7) 봉림사 禪堂, 경보는 947년(정종 2)에 玉龍寺의 上院에서 입적했다. 찬유는 958년(광종 9) 방 앞에서 유훈을 남기고 방안으로 들어가 가부좌한 채 高達院 禪堂에서 입적했다. ‘房’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체는 ‘법당’이었다. 보림사의 ‘상방’, 성주사의 ‘선실’, 굴산사의 ‘상방’, 봉림사의 ‘선당’, 옥룡사의 ‘상원’, 고달원의 ‘선당’ 등은 법당이었던 것 같다. 체징의 입적부터 고려 초 광종에 이르는 시기에 다양한 명칭을 가진 법당이 확인된다. 선승의 입적 장소는 ‘법당’이었고, 그곳에서 임종거나 유훈을 남겼다. ‘법당’이 직접 확인되는 사례는 경문왕 대의 체징부터이다. 초전승인 도의나 홍척, 혜소 당시 선종 사원에 법당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초전승의 활동 시기에도 선종 사원 내에는 당연히 법당이나 승방이 존재했을 것이다.

26) 한기문, 앞의 글, 2001, 285~287쪽 ; 김두진, 앞의 책, 2007, 111~113쪽.

법당과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法印국사 珽文의 사례이다. 그는 고려 태조 대에 別和尚에 제수된 이후, 혜종과 정종을 거쳐 광종 때에 王師 및 國師에 책봉된 화엄종 승려이다.²⁷⁾ 입적을 예감한 탄문은 975년(광종 26)에 房 앞에서 유훈을 남긴 뒤 방 안으로 들어가 가부좌하고 普願寺 法堂에서 입적하였다. 그는 화엄종 승려이지만 선승의 입적 모습과 대동소이하다. 또, 교종 사원인 보원사에서 법당에서 설법이 이뤄졌다. 신라하대 선종의 융성과 상당설법 방식이 교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 僧塔과 僧塔碑(殿) 건립의 본격화

신라하대 불교 조각에서 주목되는 변화는 僧塔과 僧塔碑 건립의 본격화였다. 가람구조에도 僧塔殿 또는 碑殿이라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다. 둘은 선승을 추모하는 기념물로, 선종 산문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표상하는 상징물이다. 승탑과 탑비 건립은 교종 고승이 없지 않지만, 선승을 통해 확산되었다. 대상도 국사나 왕사 혹은 그에 준하는 고승대덕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문도와 단월은 최고의 정성을 들여 제작했으며, 왕실과 국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다.²⁸⁾ 선승을 우대하여 만든 승탑은 조사를 부처와 같은 존재로 숭앙했던 당시의 祖師觀을 반영한다.

승탑은 승려의 유골이나 사리를 봉안하는 墓塔적 성격을 갖는 조형물이다. 浮圖·浮屠로 불리며 당대의 자료인 「신행비」, 「혜철비」, 「편운화상부도」 등에서 용례가 확인된다. 「염거화상탑지」에는 「廉居和尚塔」이라고 해 「선승명+탑」으로 불린다. 현존하는 승탑비도 「보조국사 靈塔碑銘」, 「大朗慧和尚 白月葆光之塔碑銘」과 같이 「영탑」 혹은 「백월보광탑」 등으로 호

27) 김두진, 앞의 책, 2006, 139-144쪽.

28) 엄기표,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 학연문화사, 2003, 17-18쪽.

칭되었다. 부처의 탑인 ‘佛塔’과 구분하여 승려의 탑이란 의미의 ‘승탑’이란 용어의 사용이 제안되었다.²⁹⁾ 신라하대 선종과 맞물려 부처의 불탑에 대응하는 조사의 탑이 유행하는 시대적 조류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승탑’을 고려해 봄직하다.

승탑비는 승탑과 짝을 이루어 1승탑 1탑비가 조영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탑비는 승탑의 주인공인 고승의 일대기를 정리한 전기라는 점에서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이기도 하다. 탑비의 형태는 거북이나 연꽃잎을 새긴 귀부에 몸돌인 비신을 꼽고 그 위에 이수를 얹었다. 비신에 새긴 비문은 국가의 공인을 받아 당대를 대표하는 문장가와 서예가, 석공이 撰書와 書者, 刻者로 참여했다. 비문은 선승의 일생을 부처에 대응하는 조사의 모습으로 찬미했다. 그 속에는 선승의 법계와 사상, 국가와 왕실 등 단월세력과의 관계, 선승이 보여준 이적 등이 기록되어 당시의 불교사를 풍성하게 전해준다. 승탑은 고승의 행적을 기리는 조형물이며, 탑비는 문학과 서예로 덕을 드러낸 기념물로, 현존하는 예술과 문학을 종합한 한국 중세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평가된다.³⁰⁾

신라하대 승탑과 탑비가 가장 먼저 건립된 선승은 신행선사로, 입적 후 35년이 지난 뒤인 813년(헌덕왕 5)에서야 조성된다. 대체로 8세기 후반까지는 승탑 건립이 일반화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도의·홍척 등이 남종선을 이어오면서 본격화된다. 도의국사의 영탑과 탑비가 건립되었고, 진전사지에는 승탑이 현전한다. 홍척의 승탑은 탑명이 凝夢이고, 탑비의 일부와 함께 실상사에 전해 온다. 이들의 승탑과 탑비가 입적 뒤 곧바로 건립되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건립이 분명한 승탑은 844년(문성왕 6)의 廉居화상탑

29) 소재구, 『新羅下代와 高麗時代 僧塔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1.

30) 허홍식, 「부도와 탑비의 예술과 문학」 『한국의 중세문명과 사회사상』, 한국학술정보, 2013, 422-429쪽.

이다.³¹⁾ 이후 혜철(868~872년 사이), 도윤(868~888년 사이), 현옥(868년 입적) 등의 승탑과 탑비가 건립되면서, 9세기 중반 무렵부터 일반화된다.³²⁾

혜소는 850년(문성왕 12) 입적했으나, 승탑과 탑비는 곧바로 건립되지 못하였다. 탑을 만들어 형상을 보존하지 말고, 비를 만들어 행적을 기록하지 말라는 유훈을 남겼기 때문이다. 36년이 지난 886년(정강왕 2)이 되어 서야 문인들이 건립을 추진하였다. 국왕 측근 관료의 요청에 따라 헌강왕이 시호와 탑명을 내리고 탑비 건립을 허락하였다. 입적 당시 승탑과 탑비를 세우지 말라고 한 것으로 보아, 건립이 일반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의, 홍척의 승탑도 그들의 입적 즈음에 건립됐을 것이다.³³⁾ 그 결과 최치원이 「도현비」에서 ‘法碣相望 禪碑最多’라고 증언하기에 이르렀다. 형상과 문자에 구애되지 않는 선종에서 그것에 집착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었으나, 선승의 사상과 명성을 후세에 널리 전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승탑과 승탑비는 선승의 입적 이후 일련의 장례 절차에 따라 건립되었다. 도현은 882년(헌강왕 8) 12월 賢溪山 安樂寺에서 가부좌한 채 입적하였다. 이틀 뒤 현계산에 임시로 유체를 모셨다가, 1년 뒤인 883년 曦陽山 鳳巖寺로 옮겨 승탑을 건립하였다. 국왕은 建功鄉의 수령인 金立言을 파견하여 제자를 위로하고 智證禪師라는 시호와 寂照라는 탑호를 내렸다. 이어 비석 세우는 일을 허락하고, 문인들에게 선사의 행장을 바치도록 했다. 885년 崔致遠에게 비문을 찬술토록 명하였다. 893년에 비문을 완성했으나 곧바로 건립하지 못하고, 924년 西口大將軍 蘇判 阿叱彌와 加恩縣

31) 진정환은 855년(문성왕 17)에 조성되었다고 한다(진정환, 「실상사 승탑 조영으로 본 실상산문과 정권」 『불교미술사학』 23, 2017, 103쪽).

32) 엄기표, 앞의 책, 2003, 62쪽.

33) 도의의 승탑은 821년에서 염거화상탑이 건립되는 844년 사이(엄기표, 위의 책, 2003, 37쪽), 홍척의 승탑은 840년 즈음에 조성된 팔각원당형 승탑 가운데 가장 빨리 조성된 것이라고 한다(진정환, 앞의 글, 2017, 102쪽).

將軍 熙彌 등이 건립했다. 도헌은 ‘입적→국왕의 사신 파견→조문·위로→시호와 탑호 하사→문인들에게 행장 제출 명령→최치원에게 비문 찬술 명령→탑비 건립’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수철화상³⁴⁾은 ‘입적→사신 파견→위문→시호와 탑호 하사→장례 물품 및 비용 지원→문인의 탑비 건립 요청→비문 찬술 명령→탑비 건립’의 절차를 거쳤다. 행적의 경우는 ‘입적→신덕왕의 中使 파견과 장례 지원→승탑 건립→제자들의 탑비 건립 요청→경명왕의 시호와 탑호 하사→최언위에게 비문 찬술 명령’의 순으로 이뤄졌다.

승탑과 탑비를 세울 장소와 석재의 선정과 운반, 승탑의 조성, 비문의 찬자와 서자의 선정, 전액의 서자, 석공, 장례 의식 등 선종의 입적 이후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비용은 국가차원에서 지원되었다. 담당 관청(有司)과 사원의 전문 기술자인 장인이 동원되었다. 조사의 승탑과 탑비는 산문의 위상 및 정체성과도 직결되며, 단월세력의 정치적 이해가 맞물려 있었다. 해당 사원의 선문 내 위상, 제자들의 법계 계승의 정통성과 관련된 중요한 상징성을 지녔다. 승탑과 탑비가 건립되는 사원은 조사의 적통을 계승한 본산 또는 중심 사원, 그곳의 문하제자는 적통으로 공인받는 의미가 있었다. 선종이 정착하고 분화가 진행되면서 문하제자와 소속 사원, 단월세력 간에는 치열한 승탑 유치 경쟁이 벌어졌다. 그에 따라 건립 과정에 우여곡절이 발생기도 했다.

절중은 강화도 銀江禪院에서 입적해 대비하였으나, 승탑은 무주의 桐林寺에 건립되었다. 효공왕의 명을 받은 朴仁範은 비문을 찬술하지 못하고 사망했고, 뒤이어 崔彦擣가 완성했으나 신라는 쇠망의 길로 접어들었다. 20여년 후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안정기가 되어서야 본산인 흥녕사로 옮겨 승탑과 탑비가 건립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정치 상황과 은강선

34) 최경선, 「『영원사수철화상비』의 판독과 찬자·서자에 대한 검토」 『역사와 현실』 101, 2016, 209쪽.

원, 동림사, 흥녕사를 중심으로 하는 문인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기 때 문이었다. 당시는 신라하대에서 후삼국 정립기로 접어들었고, 본산에 해당 하는 흥녕사는 폐허가 되었다. 은강선원은 입지 여건과 승탑을 세울만한 특출한 문하승이 배출되지 못했고, 동림사 만큼 뚜렷한 단월이 없었던 것 같다. 아마, 동림사 문도의 주도로 승탑이 건립되었을 것이다. 그 뒤 다시 흥녕사가 복구되고 그의 승탑과 탑비는 흥녕사로 옮겨졌다. 이로써 흥녕 사는 고려 왕실로부터 본산으로서의 위상을 공인받게 되었다.³⁵⁾

실상사에는 홍척·수철·편운화상의 승탑이 집중적으로 건립되었다.³⁶⁾ 홍척은 西堂 智藏(735-814)의 법을 잇고 흥덕왕이 즉위하는 826년 즈음에 귀국한다. 그는 남악 실상사에 머물면서 흥덕왕과 宣康태자(金忠恭)의 귀 의를 받고, 830년 무렵에는 흥덕왕의 초빙을 받아 경주에 방문하여 國師 로 책봉되었다. 이로써 실상사는 신라 선종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 봉림산문의 개산조인 圓鑑 玄昱은 당에서 귀국해 837년(희강왕 2) 에서 840년까지 대략 4년간 실상사에 머물렀다. 이때 민애왕과 신무왕 등 신라 왕실의 귀의를 받는다. 현옥은 章敬 懷暉(755-816)의 법을 이어, 서 당 지장의 심인을 받은 홍척과는 법계상 차이가 있었다. 법맥이 다른 두 명의 조사가 실상사에 머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³⁷⁾

35) 엄기표, 앞의 책, 2033, 48-50쪽; 李仁在, 「충주 정토사 玄暉와 영월 흥녕사 折中-고려 혜종대 정변과 관련하여-」 『韓國古代史研究』 49, 2008, 306-313쪽.

36) 조범환, 앞의 책, 2008; 조범환, 「新羅 下代 圓鑑禪師 玄昱의 南宗禪 收容과 活動」 『동북아 문화연구』 14, 2008; 조범환, 앞의 책, 2013; 배재훈, 「片雲和尚浮圖를 통해 본 실상산문과 견훤정권」 『百濟研究』 50, 2009; 정선중, 「實相寺 秀澈和尚塔碑의 陰記와 重建에 대하여」 『불교문화연구』 11, 남도불교문화 연구회, 2009; 정동락, 「秀澈和尚(815-893)과 新羅王室」 『韓國古代史探究』 3, 2009; 정동락, 앞의 글, 2011b; 배재훈, 「원감 현옥의 실상사 주석과 실상산문의 사자상승」 『韓國古代史研究』 78, 2015; 진정환, 앞의 글, 2017.

37) 배재훈은 “실상사의 홍척이 이 시점에는 실상사의 현옥으로 뒤바뀐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배재훈, 앞의 글, 2015, 339쪽).

실상사에는 홍척을 이은 다수의 선승들이 존재했고, 이들은 현옥의 주석에 달갑지 않았을 수 있다. 게다가 840년 즈음에 홍척이 입적³⁸⁾하면서, 실상사의 귀속과 법통 문제가 발생할 상황이 연출된다. 이때 수철화상 등 홍척의 제자들은 스승의 장례를 주도하면서 발 빠르게 대응한다. 신라 왕실에 요청하여 홍척의 시호와 탑호를 받아, 실상사에 건립하였다. 이로써 홍척의 제자들은 실상사의 주도권을 왕실로부터 공인받았고, 실상사가 산문의 본산임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었다. 수철은 홍척의 법맥을 이은 적통으로 인정되었다. 이른바 수철화상에 의한 산문의 깃발 쫓기와 적통 계승 기획이 성공한 셈이다. 현옥은 더 이상 실상사에 머물지 못해 혜목산 기슭의 암자(토굴)로 이거하였고, 경문왕 때에 비로소 高達寺에 주석하였다.

수철은 이후 경문왕, 헌강왕, 진성여왕 등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경문왕계 왕실과 결연하였다. 진성여왕은 왕궁으로 초빙해 국사로 책봉하고, 端儀長公主의 원당³⁹⁾인 양주(밀양)의 瑩原寺⁴⁰⁾를 기진해 머물게 했다. 수철은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南岳 북쪽의 法雲寺로 이석하였고, 893년(진성왕 7) 5월에 입적했다. 수철이 입적한 곳이 법운사 혹은 영원사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의 비문에는 ‘良州 瑩原寺 故 國師 秀澈和尚’으로 되어 있다. 수철은 893년 입적하였고, 탑비는 905년⁴¹⁾ 신라 왕실의 지원을 받아 실상사에 건립되었다. 승탑과 탑비는 당초 영원사에 건립코자 했으나, 결국 실상사에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후백제의 세력을 염두에 둔 신라 왕실

38) 정동락, 앞의 글, 2011b, 337쪽. 홍척의 입적 시기를 836년으로 보기도 한다.(배재훈, 앞의 글, 2015, 328쪽)

39) 한기문, 「高麗時期 密陽 瑩原寺의 所屬變化와 그 背景」 『金潤坤 教授 定年紀念論叢 韓國中世社會의 諸問題』, 한국중세사학회, 2001, 693쪽.

40) 수철화상비의 새로운 판독에 의하면 深源寺는 모두 瑩原寺로 파악되었다(최경선, 앞의 글, 2016, 211쪽).

41) 정선중, 앞의 글, 2009, 177쪽.

의 의도와 실상산문의 적통을 고려한 제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수철비」 비명에 “祖가 서당 지장,父가 남악 홍척”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수철은 비체에 언급된 영원사, 실제의 승탑과 탑비 건립처인 실상사가 달랐다. 이는 홍척의 또 다른 제자인 片雲화상과 관계된다. 편운화상이 910년 입적하게 되자, 이번에는 그의 승탑이 실상사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진 조계암지에 건립된다. 그의 승탑에는 “創祖인 洪陟의 제자인 安峰寺의 創祖인 片雲화상의 浮圖이다. 正開 10년 庚午歲에 건립하였다.”는 명문이 기록되었다. 안봉사는 성주에 위치했던 사원으로 파악되며, 정개는 후백제의 연호이다.⁴²⁾ “창조 홍척의 제자 안봉사의 창조 편운화상”이란 표현은, 수철의 “祖가 서당 지장,父가 남악 홍척”이라는 것과 대비된다. 홍척-수철에 상응하는 홍척-편운을 내세운 또 다른 계보가 주장되었다. 실상산문 내의 적통 경쟁이 발생했고 그것이 편운의 승탑에 표출된 것이다. 편운의 승탑은 후백제와 결연한 그의 제자들이 안봉사가 아니라 실상사에 건립했다. 후백제 왕실로부터 편운의 제자들이 본산의 적통을 이었음을 공인받은 셈이다.⁴³⁾ 나말려초의 전환기와 겹쳐지면서 발생한 현상이었다.

신라하대 실상산문 내에는 수철계와 편운계 사이에 본산의 주도권과 적통을 둘러싼 경쟁과 대립이 존재했다. 수철계는 신라 왕실의 후원을 받았고, 편운계는 후백제를 선택하여 자신들 중심으로 법계를 공식화했다. 이후 정국은 고려의 후삼국 통일로 이어졌고, 후백제의 몰락과 함께 편운계도 몰락한 듯하다. 신라하대 선종산문에서는 사자상승의 법통 계승은

42) 金包光, 「片雲塔과 後百濟의 年號」 『佛敎』 49, 佛敎社, 1928, 33~35쪽 ; 배재훈, 앞의 글, 2009, 208~219쪽.

43) 진정환은 편운화상탑 조성은 “후백제가 실상사를 통제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라, 후백제 정권의 냉대를 극복하고자 했던 실상사 내 친후백제 세력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보았다(진정환, 앞의 글, 2017, 113쪽 및 119쪽).

중요한 문제였고, 본산의 주도권과도 연결되었다. 법계의 적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물밑 경쟁과 기획을 통해 획득되는 것이었다. 조사에서 제자, 문손으로 이어지는 적통문제는 스승의 승탑과 탑비 건립처가 중요하였다. 법통 경쟁의 최종적인 결말은 본산 내에 스승의 승탑과 탑비를 건립해 국가로부터 공인받는 것이었다.

신라하대 선종이 융성하면서 가람구조에서 조사당이 새롭게 등장하고, 법당과 승방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승탑과 탑비[전]이 본격적으로 건립되는 변화상이 있었다. 이는 최근 이루어진 고고학적인 성과에서도 확인된다. 신라하대 선종사원은 다양한 가람구조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중문-탑-금당-강당과 그를 둘러싼 회랑이라는 기존의 가람구조가 상당부분 유지되었다. 선승들이 왕과 귀족들의 도움을 받아 사찰을 신축, 혹은 증진하여 기존의 가람구조를 활용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전과는 별도로 법당이 조영되거나, 강당과는 별도로 승방의 규모가 커지고, 조사당과 승탑[전]이 만들어지는 새로운 변화가 보인다고 한다.⁴⁴⁾ 새로운 사상이 가람구조의 변화로 귀결되고 있었음이 실증된 셈이다.

IV. 철불의 조성과 그 배경

1. 철불의 조성 현황

신라하대 선종의 전래와 확산에 따라 신앙 및 의례 행위의 대상인 불교 조형물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금당에 봉안된 불상

44) 양정석, 「九山禪門 伽藍 認識에 대한 考察」 『新羅文化』 40, 2012, 225쪽.

의 재질이 이전 시기에는 제작되지 않던 鐵佛의 등장이었다. 철불은 9세기 무렵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 고려 초기까지 크게 유행했다가, 점차 수요가 줄어 금동불이 선호되면서 드물어졌다.⁴⁵⁾

철불은 시기적으로 나말려초라는 전환기, 지역적으로는 중앙보다는 지방, 사상적으로는 선종의 융성을 배경으로 선종 사원에 집중적으로 제작되었다. 그간 전환기의 불교조각이라는 측면에서 철불이 주목되었다.⁴⁶⁾ 신라하대 조성된 철불은 대략 16구가 확인되며, 현전하는 것은 10구 정도이다.⁴⁷⁾ 선승비와 조상기에서 제작 과정을 알 수 있는 사례를 검토한다.

현존하는 철불로 가장 오래된 것은 실상사 철불로, 높이 273m의 장대한 규모이다. 신라하대 철불의 출발점이자 유행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신라 선종의 기념비적 불상으로 평가된다.⁴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기가 없어, 시기, 존명, 주체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조성 시기는 828년(최인선·조범환), 828년~840년(최성은), 9세기 2/4분기인 825~850년(문명대), 문성왕 재위 기간인 840~850년 사이(강건우)로 갈린다. 존명도 비로자나불(문명대), 노사나불(강건우·최성은) 등으로 나뉜다. 조성 주체도 흥척과 흥덕왕·선강태자·장보고 세력(최성은), 수철화상과 문성왕(강건우) 등으

45) 최성은, 『철불』, 대원사, 1995, 8~9쪽; 崔仁善, 『韓國 鐵佛 研究』, 한국고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1~21쪽.

46) 철불과 관련한 최근의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文明大, 「新羅鐵佛 造成問題와 實相寺 鐵阿彌陀佛坐像의 研究」, 『佛敎學報』 37, 2000; 郭丞勳, 「統一新羅時代의 政治變動과 佛敎」, 國學資料院, 2002; 조범환, 「新羅 下代 洪陟선사의 實相山門의 개창과 鐵佛 조성」, 『新羅史學報』 6, 2006; 조범환, 앞의 책, 2008; 최성은, 「전환기의 불교조각: 나말려초 불상의 새로운 경향」, 『梨花史學研究』 33, 2006; 崔聖銀, 「張保皋 선단과 신라하대 불교조각」, 『先史와 古代』 32, 2010; 조범환, 앞의 글, 2012; 조범환, 앞의 책, 2013; 강건우, 「實相寺 鐵佛 研究」, 『불교미술사학』 15, 2013; 崔聖銀, 「신라하대 實相寺 철조여래좌상에 대한 고찰」, 『韓國史學報』 54, 2014.

47) 최인선, 앞의 박사학위논문, 1998, 14쪽, <표-3> 통일신라 철불 목록.

48) 최성은, 앞의 글, 2014, 158쪽.

로 다르다.

藥師坐佛 鐵鑄 1體 : 신라 흥덕왕 3년(828) 開山祖 당시에 주조한 좌상인데 당시 9산에서 일반 본존으로 숭봉하던 盧舍那佛像이니, 회양산의 鳳巖寺와 가지산의 寶林寺에도 이와 동일한 양식의 주조불상을 奉眞하였는데 보림사 보조비 중에 노사나상이라 하였다. 세속에서 석조상은 통칭 미륵이라 하고 주조상은 通名하여 약사라고 하니 본 불상이 넓은 들판 田地 중에 있을 때에 세상 사람이 약사라 칭한 까닭으로 중창 당시에 忘本存俗하여 이름하였다(『實相寺事績』).⁴⁹⁾

김영수는 실상사의 철불을 828년 조성된 노사나불로 파악했다. 그 외에 정중탑 2좌는 흥덕왕 3년(828) 개산 당시, 凝蓼塔은 흥척국사의 탑으로 경문왕대 건립, 楞伽寶月塔은 秀澈국사의 탑으로 효공왕 9년(905)인 天祐 2년 乙丑, 片雲탑은 正開 10년인 신라 효공왕 때 건립되었고 정개는 후백제의 연호라고 했다. 수철탑, 편운탑 등은 현전하는 자료와 연대가 일치한다. 철불 조성 연대도 근거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 실상사 철불은 흥척의 실상사 주석 당시 흥덕왕과 선강태자의 후원을 받아 조성된 노사나불로 여겨진다.⁵⁰⁾

성주산문의 성주사에도 철불이 조성되었다. 845년 귀국한 무염은 847년(문성왕 9) 무렵에 성주사를 창건하였다. 「무염비」에는 김입지가 찬술한 「성주사비」를 인용해 ‘불전과 영당의 건립 사실을 전한다. 성주사 비편에는 “伊滄 魏昕(金陽)이 金殿에 불상이 없는 것을 한탄해 家財를 희사하고 租稻를 충입하여 丈六世尊像을 주조해 봉안했다. 감색의 실과 같은 나발과 붉은 손바닥은 상스러운 수인을 앞으로 내밀었다.”는 내용이 있다.

49) 金映遂 編, 「智異山實相寺事績 上」 『考古美術』 108, 1970.

50) 조범환, 앞의 책, 2008, 44쪽 ; 강건우, 앞의 글, 2013, 81쪽 ; 최성은, 앞의 글, 2014, 185~186쪽.

성주사지 부근에서 출토된 철불편 중에는 시무외·여원인 계통의 수인이 확인된다.⁵¹⁾ 『성주사사적』에서는 “毘盧遮那佛 一大尊像 三千佛 相安于三千佛殿 … 文聖大王造成 願佛”이라 했다. 성주사 철불은 금당의 주존불로, 김양의 후원으로 조성한 문성왕의 원불이었다. 김양은 金周元의 후손으로 신무왕의 즉위를 도운 공신이자 문성왕의 장인으로, 성주사 창건의 최대 단월이었다.⁵²⁾

동리산문의 태안사에서 철불이 조성되었다. 2001년 태안사 寂默堂터에서 철제 佛手가 발견되었다. 불수는 胡粉을 입혔을 가능성이 높고 수인은 실상사의 노사나불 설법인을 연상케 하며, 문성왕대인 850년대에 조성됐을 것이라고 한다.⁵³⁾ 『태안사지』에는 金堂의 堂主로 높이 4尺 6寸(약 1.3m 정도)의 철조약사여래좌상, 식당에는 높이 3척 3촌의 철조약사불상이 언급되었다.⁵⁴⁾ 태안사는 적인선사 慧徹이 842년(문성왕 4) 무렵 古寺를 수리해 주석했다.⁵⁵⁾ 문성왕은 절의 사방에 禁殺幢을 세워 토지소유권을 인정해 주었다. 왕이 理國安民의 요체를 묻자 혜철은 奉事 약간 조항을 올렸다. 이즈음에 신라 왕실의 후원으로 주조한 노사나불로 보인다.⁵⁶⁾

장흥 보림사의 철불은 조상기가 전한다. 체징은 837년 입당했다가 3년 뒤인 840년 귀국했다. 858년(헌안왕 2) 무주 黃鶴蘭若에 잠시 머물다가,⁵⁷⁾

51) 강건우, 앞의 글, 2013, 85~86쪽.

52) 조범환, 앞의 책, 2001, 49~55쪽.

53) 裊宰浩, 「鐵製 佛手와 桐裏山門 大安寺- 谷城 泰安寺 출토 철제 불수와 관련 하여-」 『美術資料』 89, 2016, 267~271쪽.

54) 배재호는 『태안사사적』에 나오는 4척 6촌의 철불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배재호, 위의 글, 2016, 271쪽).

55) 조범환, 앞의 책, 2008, 69쪽.

56) 최인선은 태안사 철불 2구를 850년대 조성한 것으로 파악했고(최인선, 앞의 박사학위논문, 1998, 14쪽, <표3>), 최성은도 혜철선사 초창 때 조성한 약사불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최성은, 앞의 글, 2010, 22쪽).

57) 「체징비」에는 大中 13년 戊寅년 헌안왕 즉위 이듬해로 표현했다. 이에 체징이 가지산사로 옮긴 해를 859년(헌안왕 3)으로 보기도 한다(조범환, 앞의 책,

같은 해 10월 왕의 교에 따라 迦智山寺(보림사)로 거처를 옮겼다. 이곳은 원래 경덕왕 때 화엄종의 승려였던 元表大德이 창건한 사원으로, 759년(경덕왕 18) 왕명으로 세운 長生標柱가 있었다. 화엄종 사원에서 선종 사원으로 전환된 사례이다. 859년 2월 長沙縣 副守인 金彦卿(金濼宗)⁵⁸⁾이 사재를 내어 철 2,500근을 구입해 노사나불 1구를 주조하여, 선사가 거주하는 梵宇를 장엄했다. 헌안왕은 望水宅과 理南宅에 교를 내려 租 2000斛과 金 160分을 공덕을 장식하는데 충당하고, 절은 宣敎省에 속하게 했다. 861년(경문왕 1) 불사가 완성되자 낙성식을 개최하였다. 뒤이어 870년(경문왕 10)에는 김수종의 서원과 경문왕의 칙명으로 북탑과 남탑을 조성했다.

보림사 철불은 높이 2.73m 정도의 규모이다. 불상의 왼쪽 팔 뒷면에 조상기가 양각되어 있다.

불상을 조성한 때는 석가여래 입멸 후 1808년이다. 이때는 情王 즉위 3년(859)이다. 大中 12년(헌안왕 2, 858) 戊寅 7월 17일 무주 장사현 부관 金濼宗이 주청했고, 정왕은 8월 22일 칙령을 내렸으며 □ 몸소 만들 고도 피곤함을 알지 못했다(「보림사 비로자나불 조상기」).

「체징비」와 조상기를 종합하면 858년 7월 김수종이 私財로 철 2,500근을 내어 헌안왕에게 주청하여, 8월에 칙령을 받고, 859년 2월경에 완성했다. 김수종이 체징이 머무는 보림사를 장엄하기 위해 발원하고, 헌안왕의 허락을 받아 조성한 철조 노사나불좌상이었다.

금강산 長安寺의 철불은 현전하지 않고, 석조 광배에 쓴 명문이 전한다.

2008, 19쪽). ‘龍集于析木之津’은 무인년으로 대중 12년인 858년이므로, 비문에 1년의 착오가 있다. 또, 당 宣帝 14년은 860년이지만, 1년의 착오를 계산하면 859년이 된다.

58) 김언경과 김수종의 동일인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조범환, 앞의 책, 2008, 18쪽, 주43).

像末의 시대에 沙門 覺賢이 慧命이 끊이지 않도록 힘쓰고, 先代 法師들의 遺業을 받들고자 여러 因緣있는 사람들과 함께 咸通 3년(경문왕 2, 862) 歲次 壬午 4월 11일에 삼가 毘盧遮那佛像을 鑄成한다. ... 壬午년 8월 일 法彌이 쓰다(「長安寺 毘盧遮那佛背石刻」).⁵⁹⁾

장안사 비로자나불은 862년(경문왕 2) 4월 11일에 覺賢의 주도로 조성하였다. ‘鑄成’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철불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같은 해 8월에 별도로 석조 광배를 만들고, 法彌의 발원문을 새겨 놓았다. 장안사는 당시 선종 사원이었으며, 각현과 법필도 선승으로 판단된다는 연구가 있다.⁶⁰⁾ 像法 말기의 시대에 慧命이 끊이지 않기를 기원한 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국왕이나 단월에 대한 구체적인 발원은 없다. 이 시기 금강산에 주석한 선승으로는 사자산문의 개산조인 澈鑑선사 道允이 떠오른다. 도윤은 825년 입당해 南泉 普願의 법을 잇고, 847년(문성왕 9) 귀국하였다. 곧바로 楓岳 長潭寺에 주석했는데, 법을 구하려는 자가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 뒤 경문왕(861~874)의 요청으로 화순 雙峰寺로 이석하였다.⁶¹⁾ 각혜와 법필은 도윤이 장담사에 있을 때의 제자가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사자산문에서도 철불을 조성한 사례가 확인된 셈이다.

신라하대 여러 구의 철불을 조성한 선승은 도현이다. 그는 864년 端儀 長翁主의 기진을 받아 賢溪山 安樂寺에 주석해,⁶²⁾ 자신의 출가를 도와준 金嶷勳⁶³⁾을 위해 丈六 玄金像을 주조하고 銑을 발랐다. ‘玄金像’은 철불을 의미한다. 뒤에 만든 봉암사 철불을 염두에 두면, 노사나불일 가능성이 높

59) 許興植, 앞의 책, 1986, 664쪽 ; 곽승훈, 앞의 책, 2002, 242~244쪽.

60) 곽승훈, 앞의 책, 2002, 240~246쪽.

61) 조범환, 앞의 책, 2008, 166쪽.

62) 현계산 안락사는 원주 거둔사로 파악된다(李仁在, 「羅末麗初 北原京의 政治勢力 再編과 佛教界의 動向」 『韓國古代史研究』 31, 2003, 305쪽).

63) 김억훈은 민애왕을 도와 달구벌에서 金陽과 張保臯의 군대를 막는데 실패한 金嶷勳과 동일인이라고 한다(조범환, 앞의 책, 2008, 188쪽).

다. ‘鋤’은 황금 중에서도 가장 광채가 나는 것이므로,⁶⁴⁾ 금분을 입혔을 것이다. 김의훈을 저승으로 인도하고자 조성했으며, 경문왕의 누이인 단의 장옹주의 후원이 있었을 것이다.

그 자리에서 놀라 감탄하면서 “승려의 거처가 되지 않는다면 도적의 소굴이 될 것이다.”고 하였다. 마침내 대중에 출선하여 후원에 대한 방비를 기본으로 삼았는데, 기와로 인 처마가 사방으로 이어지도록 일켜 지세를 진압토록 하고, 鐵像 2구를 주조하여 절을 호위토록 하였다. 中和 辛丑년(881, 헌강왕 7)에 前 安輪寺 僧統인 俊恭과 肅正臺의 史인 裴律文을 보내 절의 경계를 標定케 하고 이어 鳳巖寺라고 사액하였다 (「도헌비」).

안락사에 머물던 도헌은 沈忠의 회사로 회양산으로 옮겼다. 881년 즈음에 도적의 소굴이 될 것을 염려해 봉암사를 창건하고, 사방에 추녀를 드리워서 지세를 높였으며, 철불 2구를 주조해 호위토록 했다. 비보적 성격의 풍수지리설과 연결된다.⁶⁵⁾ 철불을 조성해 사원을 장엄하고 도적을 교화시킬 방편으로 삼았다. 그 중 1구는 한국전쟁 때까지 전해왔으나, 훼손되었는데 장육여래상(석가상)이라고 한다.⁶⁶⁾ 앞서 본 『실상사사적』을 참조하면 나머지 1구는 노사나불이었을 것이다. 철불 조성에는 지방호족으로 보이는 심충의 후원이 있었다. 헌강왕은 봉암사를 사액하고, 도헌을 月池宮으로 초빙해 忘言師로 삼는 등 극진히 대우하였다. 봉암사 철불은 심충이 발원하고 헌강왕의 칙령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도피안사 철불은 비로자나불로, 대좌는 철로 제작된 거의 유일한 사례이다. 대좌 포함 전체 높이 1.8m, 불상 높이 1m 정도이다. 도피안사는 법

64)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앞의 책, 1992, 188쪽, 주270.

65) 崔柄憲, 「羅末麗初 道說의 生涯와 風水地理說」 『韓國史研究』 11, 1975, 134쪽.

66) 崔인선, 앞의 박사학위논문, 1998, 87쪽.

상종 계통의 사원으로 추정된다.⁶⁷⁾

香徒佛銘文并序 : 唐 天子 咸通 6년 乙酉(865, 경문왕 5) 정월 일에 新羅國 漢州 北界의 鐵貝郡 到彼岸寺에서 불상을 이룬 □士들은 □이 龍岳과 같이 굳고 맑았다. 이때 □하여 찾은 居士로 결연한 1,500여인은 금석과 같이 뜻을 굳게 하여 근면함에 힘든 줄 몰랐다(『도피안사 비로자나불 조상기』).

‘香徒佛’은 불상의 존명이 아니라 향도들이 조성한 불상이란 뜻이다. 조성 시기는 865년(경문왕 5) 정월이다. 비천한 사람들이라도 깨달음을 얻고, 게으르고 추한 뜻을 바꾸어 진리의 근원에 부합하기를 바라고 있다. 철원을 중심으로 한 거사 1,500명이 향도를 결성해 조성했다.⁶⁸⁾ 조상기에는 국가나 왕실을 위한 발원이 포함되지 않아, 지방 세력이 주도한 듯하다.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三和寺 철불은 높이 1m 정도이다. 삼화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釋息影菴記」를 토대로 梵日이 창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997년 명문이 확인되면서 범일 이전에 창건됐음이 분명하다.⁶⁹⁾ 존명은 盧舍那佛이며, 대략 850~860년대에 조성되었다. 국왕의 발원과 敎에 의해 제작되었고, 불사를 총감독한 伯士는 華嚴業(宗)의 決言 太德이었다.⁷⁰⁾ 삼화사는 860년대에는 화엄종 사원으로 왕실의 후원으로 철불을 조성했고, 870년대 이후 범일에 의해 굴산문의 사찰로 변모한 것으로 보인다.⁷¹⁾

67) 곽승훈, 앞의 책, 2002, 225쪽.

68) 곽승훈은 철원 지역의 촌주 중심으로 자영농이 포함되어 향도를 결성해 조성했다고 한다.(곽승훈, 앞의 책, 2002, 225쪽)

69) 유지내, 「삼화사 철불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14 ; 장일규, 「삼화사 철조노사나불상의 조성과 그 의미」 『이사부와 동해』 9, 2015.

70) 金相鉉, 「三和寺 鐵佛과 華嚴業 決言 太德」 『문화사학』 11·12·13, 1999.

한편, 개경 王輪寺의 비로자나장육금상도 철불로 보인다.⁷²⁾ 李奎報가 남긴 「王輪寺丈六金像靈驗收拾記」⁷³⁾에는 제작 과정이 영험담으로 전한다. 왕륜사는 919년 태조 왕건이 개경에 창건한 10大寺의 한 곳으로, 海東宗(蘇皇宗)의 사찰이었다.⁷⁴⁾ 제작을 주도한 棟梁은 승려 巨貧과 皎光이었고, 시주자는 국왕에서 관리·선비·서민까지 다양했다. 승려의 발원→棟梁 활동→재물 시주→철 확보→불상 주조→손상 부분 보완→금당 안치 과정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서산 普願寺 철불은 고려 초기 화엄종 사찰의 조성 사례이다.

大成大王(광종)이 즉위하여 ... 었드려 대왕을 위하여 부처를 받들고 옥 같은 개송을 베풀었으며, 法王의 도를 공경하고 君子國을 빛내려고 釋迦三尊金像을 조성하였다(「탄문비」).

탄문은 949년(광종 즉위년) 보원사에 석가삼존금상을 조성했다. ‘金像’은 철불, 존명은 석가삼존불이었다. 953년(광종 4)에는 불사리 3과를 얻어 석탑도 조성했다. 보원사 철불은 탄문이 주도한 중창 불사의 일환으로 광종이 후원했을 것이다. 부처의 도를 공경하고 군자국인 고려를 빛낼 목적으로, 광종과 왕실을 위해 조성한 것으로 이해된다.

71) 정동락, 「梵日의 崛山門 개창과 성장기반 조성」 『新羅史學報』 35, 2015, 90-91쪽.

72) 최성은은 왕륜사의 장육금상은 금을 입힌 철불로 불상 조성에 시간이 걸렸다는 점에서 공정이 비교적 까다로운 분할 주조법으로 제작되었고, 손상된 틈에 거울을 끼우니 감쪽같이 메워졌다는 기록으로 보아 분할 주조로 제작된 조각 하나가 떨어져 나간 것으로 파악했다.(최성은, 앞의 책, 1995, 52-53쪽)

73) 『東國李相國集』 권25.

74) 韓基汶,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民族社, 1998, 44쪽.

<표> 신라하대 철불 조성 현황과 특징⁷⁵⁾

번호	철불명	소재지	시대	존명	규모(높이)	종파	조성주체	비고
1	실상사 철불	전북 남원	830년 전후	盧舍那佛?	2.73m	실상 산문	흥덕왕, 宣康태자	現傳
2	태안사 철불(2구)	전북 곡성	842년 무렵	약사불 (노사나불?)	4척6촌, 3척3촌	동리 산문	문성왕	2구, 不傳
3	성주사 철불	충남 보령	847년 무렵	노사나불?	·	성주 산문	金陽, 문성왕 원불	부전, 성주사비편
4	보림사 철불	전남 장흥	859년	노사나불	2.73m	가지 산문	金濤宗	현전, 조상기
5	장안사 철불	강원 회양	862년	비로자나불	·	사자 산문?	승려 覺賢, 法弼	부전, 광배석각
6	안락사 철불	강원 원주	864년 무렵	노사나불?	·	회양 산문	道憲, 端儀長翁主	부전, 도헌비
7	봉암사 철불(2구)	경북 문경	881년 무렵	석가불, 노사나불?	·	회양 산문	沈忠	부전, 도헌비
8	도피안사 철불	강원 철원	865년 무렵	비로자나불	1m	법상 종	향도 1,500여인	현전, 조상기
9	삼화사 철불	강원 동해	860년 전후	노사나불	1m	화엄 종	국왕, 決言 太德	현전, 조상기
10	왕륜사 철불	경기 개성	919년 무렵	비로자나불	·	해동 종	國王, 摺紳士庶	영험기
11	보원사 철불	충남 서산	949년 무렵	석가여래상	2.57m?	화엄 종	광종	탄문비

2. 철불 조성 배경

신라하대 철불은 남원 실상사, 곡성 태안사, 보령 성주사, 장흥 보림사, 현계산 안락사(원주 居頓寺址), 문경 봉암사, 금강산 장안사 등 주로 선종

75) 탄문의 보원사 철불 조성은 신라하대가 아니라 고려 초기에 해당하지만, 철불 조성의 전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포함시켜 표를 작성하였다.

사원에서 조성했다. 성주사, 태안사, 봉암사, 안락사, 장안사 등의 철불은 유실되어 전하지 않는다. 철원 도피안사는 법상종, 동해 삼화사는 화엄종 사원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에 들어와 태조대 해동종의 왕륜사, 광종대 화엄종의 보원사에도 조성된다. 지역적으로 전라도와 충청도, 경상도 북부와 강원도 등 한반도의 서남부와 중북부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중앙이 아닌 지방에서 조성된 특징이 보인다. 이는 신라하대에 제작된 철불 전체로 확대해도 동일한 양상이다.⁷⁶⁾

산문별로는 실상산문을 비롯해, 동리산문, 가지산문, 성주산문, 사자산문, 회양산문 등에 해당한다. 시기적으로는 흥척선사가 실상사에 주석한 830년대를 전후해 조성이 시작됐다. 그 뒤 840년대에 혜철과 무염의 태안사와 성주사, 850년대 체징의 보림사, 860년대 도윤의 제자들로 보이는 각 현과 법필의 장안사, 도현의 안락사, 880년대의 도현의 봉암사 등으로 확대된다. 선종이 한반도 서남지역에 전래·정착되어, 점차 중북부로 확산되는 추세와 비슷하다. 860년대부터는 도피안사나 삼화사 등 교종 사찰에도 조성되어, 교종에도 영향을 끼친 모양새이다.

불상의 존명은 일부는 약사불로 추정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노사나불(비로자나불)로 파악된다. 노사나불은 화엄종의 주존불로, 신라하대 선종이 화엄과 교섭하는 측면이 강했음을 보여준다. 규모는 높이 1m 내외도 있지만, 실상사·보림사와 같이 2.7m 이상의 장대한 巨像이 조성되었다. 대규모 철불 조성을 위해서는 철의 조달이 관건이었을 것이다. 그 때문에 국가나 왕실 또는 진골 귀족이나 유력 지방세력의 지원이 필요했다. 실상사 철불은 흥덕왕과 선강태자, 태안사는 문성왕, 성주사는 당시 정국을 주도한 진골귀족인 김양의 후원으로 조성됐다. 보림사 철불은 장사현의 지방관인 김수중(김언경)이 사재를 내고, 현안왕의 허락을 받았다. 장안사는

76) 최인선, 앞의 박사학위논문, 1998, 14쪽.

승려인 각현과 법필 등이 주도했다. 안락사는 경문왕의 동생인 단의장옹 주, 봉암사는 지방유력자로 보이는 심충이 후원했다. 교종 사원인 삼화사 철불은 경문왕과 중앙의 화엄 고승이 관여했고, 도피안사는 이례적으로 향도 1,500여명이 조성하였다. 830년에서 850년대까지는 국왕이나 진골 귀족 등 중앙에서 후원했고, 860년 경문왕대 이후는 왕실·귀족과 함께 승려나 지방유력자, 향도 등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여전히 왕실과 진골귀족의 비중이 높은 경향성을 보인다. 흥미롭게도 890년대 이후에는 조상기 등에서 ‘신라 철불’이 확인되지 않는다. 889년(진성여왕 3) 농민항쟁의 격화 뒤 중앙에서 후원한 철불 조성은 줄어든 것이 아닌가 싶다.

철불의 조성 동기는 성주사 철불은 ‘金毘(불전)에 불상이 없는 것을 한탄해 조성했고’, ‘문성왕의 원불’이었다. 보림사는 사찰의 장엄, 장안사는 말법시대를 당해 혜명이 끊이지 않고 선대 법사의 유업을 계승하기 위한 종교적인 목적이었다. 안락사 철불은 절을 수호하고 자신의 출가를 도와 준 김억훈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봉암사는 지세를 누르고 절을 호위하기 위해서였다. 도피안사는 향도들이 깨달음을 얻고 진리에 이르기를 바랐다. 사찰의 장엄과 국왕의 원불, 단월의 극락왕생, 중생의 깨달음 인도, 풍수지리설의 비보 관념이 반영되었다.

초기 철불의 제작을 이끈 이들은 홍척, 혜철, 체징, 무염 등 선승이었다. 이들은 주로 입당유학 뒤 귀국한 남종선의 초전승이었다. 당시 중국에서는 철불이 유행했는데, 그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盛唐期인 開元 연간(713-714)에 철불 조성이 활발했고, 대체로 대형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⁷⁷⁾ 신라 선승의 입당유학은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년이었다. 중국에서 철불이나 그 제작 과정을 목격했고, 그러한 경험이 조성의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77) 최성은, 앞의 글, 2010, 14쪽 ; 조범환, 앞의 책, 2013, 273~274쪽.

신라 철불이 당의 그것을 모방·이식하는 차원이 아니라, 신라적인 것으로 창안된 측면도 존재한다. 신라 철불은 대부분 노사나불(비로자나불)이었다. 화엄종의 주존불인 비로자나불은 舊화엄에서는 노사나불, 新화엄에서는 비로자나불이라고 했다. 수인도 시무외·여원인을 한 경우도 있으나, 지권인이 대부분이다.⁷⁸⁾ 선종 사원에서 노사나불을 조성한 것은 선종의 사상경향과 관련이 있다. 선승들은 대부분 교종에서 선종으로 방향을 선회하였고, 화엄에 대한 인식이 깊었다. 이들은 선과 교를 병립하거나 공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⁷⁹⁾ 무염의 경우, “어떤 사람은 교와 선이 같지 않다고 하나 그러한 중지를 본 적이 없다. 둘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차별할 것이 아니라, 고요히 앉아 참선하여 마음의 근본을 쉬는 것이 성인에 가까운 것”이라고 했다. 金穎이 찬한 「체징비」에는 盧舍那佛觀이 드러난다.

중생이 노사나불이 되고 노사나불이 중생이 되는 것이다. 중생은 노사나불의 법계 가운데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종횡으로 업을 지으며, 노사나불 또한 중생을 속에 품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잠연하여 항상 고요하니 어찌 미혹한 일이 아니라. 이 미혹함을 아는 사람은 크게 미혹되지 않는다. 그 미혹함을 아는 사람은 우리 선사뿐이다(「체징비」).

법신불인 노사나불에 대해 ‘중생’이 곧 ‘노사나불’이고 ‘노사나불’이 ‘중생’이라는 인식이 제시되어 있다. 체징이 보림사에 노사나불을 조성한 이유도 이에 의거했을 것이다. 노사나불 봉안은 신라 선종이 화엄의 토대 위에서 그것을 계승하는 측면을 보여준다. 당의 선종 사원은 『백장청규』에서 禪院이 律院에서 독립하여 불전을 세우지 않고 주지가 상당설법할 수 있는 법당만을 세웠다고 한다. 그와 달리 신라 선승은 선종 사찰에 佛

78) 문명대, 앞의 글, 2000, 94쪽.

79) 정동락, 앞의 글, 2011a, 220~226쪽.

殿을 건립하고 주존불로 철조 비로자나불을 봉안했다. 중국 선종 사원의 구조·성격과는 다른 신라 선종의 새로운 모습이자 특징이었다.⁸⁰⁾

철불 조성은 臨濟 義玄의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는 ‘殺佛殺祖’와는 어긋난다. 선종에서 금하는 부처와 형상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신라 선승은 철불 조성에 힘을 기울였다. 이는 ‘상구보리 하화중생(內證外化)’의 지향, 특히 중생제도의 방편에 무게를 둔 실천으로 보인다. 불상 조성은 講經·誦經·讀經·禮佛·修寺와 함께 선종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기 위한 대중교화의 방편으로 채용된 것이었다.⁸¹⁾ 홍척이 실상사에서 철불 조성의 선구를 이루었고, 혜소가 육조영당을 건립하고 범패(소리)로써 대중을 교화한 것도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철은 금동을 대신하는 대체품적인 성격을 지녔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효용성이 높았다. 신라하대 철불은 대규모의 巨像으로 다량의 철이 필요했다. 보림사 철불은 2,500근의 철이 소요되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철산지(沙鐵)인 야로현에서는 歲貢으로 正鐵 9,500근을 바쳤다.⁸²⁾ 2,500근은 적지 않은 양이다. 만약, 철불이 아니라 금동으로 제작했다면 비용은 훨씬 더 소요되었을 것이다. 신라하대에는 금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동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고, 국가적으로도 銅禁을 선포하는 등 일반 백성들의 사용이 제한되었다. 게다가 동 자체가 고가였기 때문에 이를 재료로 불상을 만들기 쉽지 않았다.⁸³⁾

반면, 선종이 전래되어 지방으로 확산되고, 선종 사원의 증가에 따라

80) 정성본, 앞의 책, 2005, 288쪽.

81) 조범환은 홍척의 철불 조성을 “일반 민중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조범환, 앞의 책, 2008, 51쪽).

82) 『세종실록』 지리지 합천군.

83) 문명대, 앞의 글, 2002, 101쪽 ; 조범환, 앞의 책, 2008, 274쪽 ; 최성은, 앞의 글, 2010, 13쪽.

불상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금동을 대신해 철이 불상의 재료로 각광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된 셈이다. 그것이 국가정책적인 측면에서 반영된 것이 834년(흥덕왕 9)에 반포된 흥덕왕의 개혁조서일 개연성이 있다. 소위 ‘풍속관계 규정’이라 불리는 이 조서는 사치풍조를 배격하고 사회기강을 바로잡아 국왕의 권위를 높이려는 시도였다.⁸⁴⁾ 그 속에는 금·은·옥 등 고급 재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육두품 이하 평민들의 사용 가능한 금속으로 놋쇠, 철, 동 등을 언급하였다. 흔히, 홍척은 흥덕왕의 개혁정치를 사상적으로 뒷받침 해 준 선승으로 파악하고 있다.⁸⁵⁾ 실상사 철불 조성은 흥덕왕과 선강태자의 지원이 있었다. 사치풍조를 단속하고 사회기강을 다잡기 위한 흥덕왕의 개혁정치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⁸⁶⁾

철은 동이나 금동의 대용품이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다. 하지만, 철불 제작을 위해서는 생산과 유통과 같은 철의 수급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철 생산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경제적·군사적인 영향력이 커서 국가가 관장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삼국통일 이후 철의 생산은 증대하지만, 여전히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였다. 그 때문에 철불 제작을 주변 야철지 분포와 관련해 이해한다. 예컨대, 실상사 철불은 남원 운봉고원 일대에서 확인되는 대규모 철 생산유적과 밀접했다는 것이다.⁸⁷⁾ 실제, 선종 사원과 철생산 유적이 관련성을 가진 경우도 확인된다. 신라 말 寶壤선사가 주석했던 청도 雲門寺와 밀양 奉聖寺가 그 사례이다. 운문사는 원래 圓光 법사가 창건한 嘉禪岬寺에서 출발한다. 기슬갑사 창건과 겹쳐지는 시기에 인근에 있던 ‘순지리고분군’의 주인공은 철과 관련이 깊었다. 또, 밀양의

84) 金東秀, 「新羅 憲德·興德王代의 改革政治」 『韓國史研究』 39, 1982, 45쪽.

85) 흥덕왕의 선종 수용 배경에 대한 연구 성과는 정동락, 앞의 글, 2011b, 355-356쪽 참조.

86) 최인선, 앞의 박사학위논문, 1998, 34-37쪽 ; 강건우, 앞의 글, 2013, 77쪽.

87) 강건우, 앞의 글, 2013, 79쪽.

‘사촌제철유적’은 보양과 태조의 진영을 모신 봉성사와 마주보고 위치했다. 보양선사는 밀양의 호족세력인 府吏 孫兢訓과 함께 태조의 후삼국 통일에 협조했다.⁸⁸⁾ 손공훈은 밀양의 철생산을 토대로 성장한 호족이며, 태조에게 협조한 내용은 철제 무기의 제작과 조달이라고 한다.⁸⁹⁾

선종 사원의 철불 조성은 철의 생산과 공급 시스템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보림사 철불은 김언경이 사재와 녹봉을 내어 철 2500근을 시납해(減淸俸出私財 市鐵二千五百斤) 제작하였다. ‘市鐵’이라는 표현은 ‘철을 시장에서 매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김언경이 개인적으로 철을 구입했는지, 아니면 장사현 부관(부수)이라는 관직 때문인지 분명치 않다. 조상기에는 그가 왕에게 주청해 칙령을 받아 철불을 조성했다고 한다. 신라 왕실에서는 철의 생산과 공급 시스템을 국가 통제 하에 두고자 했을 것이다. 선종 사원과 선승의 교화력으로 사찰과 인근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고, 철불 조성에 관여함으로써 철 생산 시스템의 원활한 통제를 기도했을 개연성이 높다. 신라시대 철불 제작에 왕실이나 귀족, 혹은 지방관이 관여한 경우가 많은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지방사회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후삼국이 정립하면서, 철불 제작도 중앙이 아니라 지방사회 구성원들의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철불은 쇠의 검은색이 드러난 상태로 봉안되는 것이 아니라, 금이나 호분을 입히고 채색하여 장엄하므로, 외형적으로 금동불과 구별하기 어려웠다.⁹⁰⁾ 철불은 금동불에 비해 투자대비 가치적인 효과는 비슷해 경제성이 높아 선호했다. 실제로, 보림사 철불은 釋迦三尊 金像이라 했고, 王輪寺丈六 金像도 마찬가지이다. 보림사 철불은 망수택과 이남택에서 시주

88) 金潤坤, 「麗代の 雲門寺와 密陽·淸道地方」 『三國遺事研究』 上,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83, 54쪽.

89) 申鍾煥, 「嘉瑟岬寺와 鐵生産 關係 研究」 『청도 가슬갑사지 종합학술조사보고서』, 청도군·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2006, 112~117쪽.

90) 최성은, 앞의 글, 2010, 14쪽.

한 금 160分을 활용해 도금했을 것이다. 도헌이 조성한 안락사 철불은 ‘鑄丈六 玄金像 傳之以銑’이라 했다. ‘玄金像’은 철로 만든 불상, ‘銑’을 발랐다는 것은 황금색의 금분을 입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철불은 불상을 장대하게 제작하여 대중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⁹¹⁾ 石佛보다 대형화에 유리하고, 금동불보다는 경제성이 높았으며, 木佛과 土佛보다는 견고했다. 철불은 선승들이 경제성·대중성·견고성을 고려하여, 철이라는 신소재를 도입한 발상의 전환이 이룬 결과물이었다. 아울러, 선승의 철불 제작 요구에 부합하는 匠人들의 기술적인 성취가 토대가 되었을 것이다.

V. 맺음말

이 글은 신라하대 전래된 선종과 선종 사원이 창출한 불교문화의 양상을 구체적 살펴본 것이다. 선종의 융성이 가람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불교 조형물의 제작으로 이어지는 불교문화의 변동 모습을 이해하려는 시도였다.

신라 하대인 9세기 초반 중국으로 유학을 떠났던 道義와 洪陟선사 등 初傳僧이 귀국하면서 선종이 전래되었다. 이후 북으로는 北山(설악산), 남으로는 南岳(지리산)에 이르기까지 신라 전역으로 선종이 확산되면서 크게 융성하였다. 실상산문과 가지산문 등 禪門이 개창되었고, 교종에서 선종으로 사상적 전환이 이루어졌다. 선종이 당시 사회 전반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인적 요소인 선승이 급격히 증가하고 다양해졌으며, 선종의 수용과 확산 기반인 사원이 다수 확보되었고, 물질 토대인 사원경제를 갖추었기 때문이었다. 선종 산문의 성립은 사상적, 인적, 물질 기반이 종합으

91) 조범환은 “개금을 해 철로 주조된 불상이라고 해도 일반 민중에게 낯설지 않았고, 이는 선승들의 일반 민중에 대한 섬세한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조범환, 앞의 책, 2013, 275쪽).

로 연결된 시대적 산물이었고, 그 중심에는 선종 사원이 존재했다.

선종의 융성은 사원의 가람구조 변화를 견인하였고, 새로운 불교 조형물을 창안하기에 이르렀다. 먼저, 이전의 가람구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祖師堂이 건립되었다. 조사당의 등장은 부처에 대응한 조사의 발견이라는 인식 전환의 결과였다. 다음으로, 조사와 제자 사이에 상당설법과 선문답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法堂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인 僧房이 중시되었다. 법당은 이전 시기 佛殿에 대응하는 건축물로 예불과 의례보다 설법을 중시하는 祖師禪의 산물이었다. 승방은 수백에서 수천의 선승을 수용하는 선종 사원의 대집단화를 상징한다. 법당과 승방은 이전 시기 불전·강당을 확장하거나 별도로 신축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선종 불교는 僧塔과 僧塔碑라는 전혀 새로운 조형물을 창안하였다. 승탑은 부처의 상징인 佛塔에 대응하는 승려의 탑으로, 선승을 부처와 같은 존재로 숭앙하던 祖師觀이 반영되었다. 승탑비는 고승의 일생을 정리한 전기이면서, 부처의 수준에 오른 선승을 찬미한 기념물이었다. 승탑과 탑비가 건립되는 사원은 조사의 적통을 계승한 本山, 그 제자는 法系の 嫡統으로 공인받는 의미가 있었다. 전환기라는 시대상황과 결합되어 건립을 둘러싼 문하제자와 단월들 간의 치열한 유치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라 하대 선종의 전래는 금당에 봉안하는 불상의 변화를 유도했다. 이전 시기에는 제작되지 않던 철불이 등장해 급격히 확산된 것이다. 철불을 제작한 승려는 흥척, 혜철, 체징, 무염 등 입당유학한 선승들이 많았다. 이들은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던 철불과 그 제작과정을 목격했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중교화의 방편으로 철불을 조성했다. 신라 철불은 중국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 대부분 盧舍那佛이었다. 화엄에 토대를 두고 敎禪並立 혹은 共存하는 것으로 여긴 선승들의 사상 경향이 반영되었다.

철불은 금동을 대신하는 대체품의 성격을 지녔고, 경제적인 효용성도 높았다. 그렇지만 다량의 철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나 왕

실 혹은 진골 귀족 등 중앙의 지원이 필요했다. 또, 철불 제작을 위해서는 철의 생산과 공급 등 수급이 뒷받침 되어야 했다. 신라 왕실에서 철불 제작에 관여하고 후원한 것은 철의 유통 시스템을 국가의 통제 하에 두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다. 철불은 신라 하대 철 생산력과 불상 제작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선종이라는 새로운 사상이 창출한 시대적 결과물이었다.

【참고 문헌】

1. 저서

- 김철준, 『韓國古代社會研究』, 知識産業社, 1975.
- 허흥식, 『高麗佛教史研究』, 一潮閣, 1986.
- 고익진, 『韓國古代 佛教思想史』, 東國大出版部, 1989.
- 김복순, 『新羅華嚴宗研究』, 民族社, 1990.
- 추만호, 『나말려초 선종사상사 연구』, 이론과 실천, 1992.
- 한국고대사회연구소,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3권,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 이지관,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新羅篇·高麗篇1, 伽山文庫, 1993·1994.
- 정성분, 『新羅禪宗의 研究』, 民族社, 1995.
- 최성은, 『철불』, 대원사, 1995.
- 한국역사연구회, 『譯註 羅末麗初金石文』 上·下, 혜안, 1996.
- 최인선, 『韓國 鐵佛 研究』,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한기문,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民族社, 1998.
- 김태완, 『조사선의 실천과 사상』, 장경각, 2001.
- 소재구, 『新羅下代와 高麗時代 僧塔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1.
- 조범환, 『新羅禪宗研究－朗慧無染과 聖住山門을 중심으로－』, 一潮閣, 2001.
- 곽승훈, 『統一新羅時代의 政治變動과 佛教』, 國學資料院, 2002.
- 엄기표,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 학연문화사, 2003.
- 김두진, 『고려전기 교종과 선종의 교섭사상사 연구』, 일조각, 2006.
- 김두진, 『신라하대 선종사상사 연구』, 일조각, 2007.
- 최인표, 『나말려초 선종정책 연구』, 한국학술정보(주), 2007.
- 장일규, 『최치원의 사회사상 연구』, 신서원, 2008.
- 조범환, 『羅末麗初 禪宗山門 開創 研究』, 景仁文化社, 2008.
- 정동락, 『新羅 下代 禪僧의 現實認識과 對應』,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2010.
- 조범환, 『羅末麗初 南宗禪 研究』, 일조각, 2013.
- 허흥식, 『한국의 중세문명과 사회사상』, 한국학술정보, 2013.

2. 논문

- 김포광, 「片雲塔과 後百濟의 年號」 『佛教』 49, 佛教社, 1928.

- 김영수 편, 「智異山實相寺事績 上」 『考古美術』 108, 1970.
- 최병헌, 「羅末麗初 道誥의 生涯와 風水地理說」 『韓國史研究』 11, 1975.
- 김동수, 「新羅 憲德·興德王代의 改革政治」 『韓國史研究』 39, 1982.
- 김윤곤, 「麗代의 雲門寺와 密陽·淸道地方」 『三國遺事研究』 上,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83.
- 여성구, 「神行의 生涯와 思想」 『朴永錫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上, 탐구당, 1992.
- 양승율, 「金立之의 『聖住寺碑』」 『古代研究』 6, 1998.
- 김상현, 「三和寺 鐵佛과 華嚴業 決言太大德」 『문화사학』 11·12·13, 1999.
- 문명대, 「新羅鐵佛 造成問題와 實相寺 鐵阿彌陀佛坐像의 研究」 『佛教學報』 37, 2000.
- 김복순, 「최치원의 종교관」 『신라 최고의 사상가 최치원 탐구』, 주류성, 2001.
- 조범환, 「新羅 下代 儒學者의 禪宗 佛教 認識－崔致遠의 四山碑銘과 관련하여－」 『韓國禪學』 2, 2001.
- 한기문, 「新羅末 禪宗 寺院의 形成과 構造」 『韓國禪學』 2, 2001.
- 한기문, 「高麗時期 密陽 瑩原寺의 所屬變化와 그 背景」 『金潤坤 教授 定年紀念 論叢 韓國中世社會의 諸問題』, 한국중세사학회, 2001.
- 이인재, 「羅末麗初 北原京의 政治勢力 再編과 佛教界의 動向」 『韓國古代史研究』 31, 2003.
- 박윤진, 「신라말 고려초의 佛法東流說」 『한국중세사연구』 21, 2006.
- 신종환, 「嘉禮岬寺와 鐵生産 關係 研究」 『청도 기술갑사지 종합학술조사보고서』, 청도군·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2006.
- 조범환, 「新羅 下代 洪陟선사의 實相山門의 개창과 鐵佛 조성」 『新羅史學報』 6, 2006.
- 최성은, 「전환기의 불교조각 : 나말려초 불상의 새로운 경향」 『梨花史學研究』 33, 2006.
- 이인재, 「충주 정토사 玄暉와 영월 흥녕사 折中－고려 혜종대 정변과 관련하여－」 『韓國古代史研究』 49, 2008.
- 배재훈, 「片雲和尚浮圖를 통해 본 실상산문과 견훤정권」 『百濟研究』 50, 2009.
- 정동락, 「眞空(855~937)의 생애와 사상」 『한국중세사연구』 26, 2009.
- 정동락, 「秀澈和尚(815~893)과 新羅王室」 『韓國古代史探究』 3, 2009.
- 정선중, 「實相寺 秀澈和尚塔碑의 陰記와 重建에 대하여」 『불교문화연구』 11, 남도불교문화연구회, 2009.
- 정선여, 「신라 하대 북종선의 동향」 『新羅史學報』 18, 2010.

- 최성은, 「張保臯 선단과 신라하대 불교조각」 『先史와 古代』 32, 2010.
- 정동락, 「新羅下代 禪宗史 研究動向」 『韓國古代史探究』 7, 2011.
- 정동락, 「洪陟禪師의 南宗禪 전래와 현실대응」 『新羅史學報』 22, 2011.
- 양정석, 「九山禪門 伽藍 認識에 대한 考察」 『新羅文化』 40, 2012.
- 강건우, 「實相寺 鐵佛 研究」 『불교미술사학』 15, 2013.
- 정동락, 「신라하대 國內派 禪僧의 西學認識」 『民族文化論叢』 55, 2013.
- 유시내, 「삼화사 철불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14.
- 최성은, 「신라하대 實相寺 철조여래좌상에 대한 고찰」 『韓國史學報』 54, 2014.
- 배재훈, 「원감 현옥의 실상사 주석과 실상산문의 사자상승」 『韓國古代史研究』 78, 2015.
- 장일규, 「삼화사 철조노사나불상의 조성과 그 의미」 『이사부와 동해』 9, 2015.
- 정동락, 「梵日의 崛山門 개창과 성장기반 조성」 『新羅史學報』 35, 2015.
- 배재호, 「鐵製 佛手와 桐裏山門 大安寺- 谷城 泰安寺 출토 철제 불수와 관련된 하 여」 『美術資料』 89, 2016.
- 최경선, 「『영원사수철화상비』의 판독과 찬자·서자에 대한 검토」 『역사와 현실』 101, 2016.
- 장일규, 「신라 말 고려 초 禪僧의 시기별·지역별 활동 추이와 山門 형성 과정」 『신라사학보』 39, 2017.
- 진정환, 「실상사 승탑 조영으로 본 실상산문과 정권」 『불교미술사학』 23, 2017.

Abstract

Zen Buddhism Temple and Iron Buddha in the
Late Period of Silla

Jung, Dong-lak

Zen Buddhism was passed down to Silla as the Buddhist monks who first introduced Zen Buddhism returned home from China upon completion of his study in the early 9th century. The Zen sect flourished as it disseminated to the Seoraksan Mountain in the north and the Jirisan Mountain in the south. The establishment of Zen Mountain Sects(禪宗山門) was the product of the time with ideological, human, and material bases interconnected both vertically and horizontally, and the Zen Buddhism temple was in the heart of it.

The phenomenal prosperity of Zen Buddhism drove a change in architectural organization of temples and produced new Buddhist structural establishments. First of all, the temple saw the establishment of Josadang Shrine(祖師堂), which is hardly seen in previous architectural organization. Next, priorities were placed on the Buddhist sanctuary where monks and disciples engaged in sermons and Zen dialogues and the Buddhist nunnery where monks engaged in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new structural establishments such as Monks Stupa(僧塔) and Monks Stupa Stele(僧塔碑) were introduced.

The late Silla Dynasty period also saw changes in Buddha statues enshrined in the main building of a temple with the Iron Buddha rapidly

disseminated. Monks who built iron Buddha statues were mostly Zennists who were accepted to and studied in Buddhist temple. The principal iron Buddha took the form of Nosana Buddha(盧舍那佛), reflecting the ideological trend of Gyosunbyeongnip(敎禪並立). Iron was used as a substitute for gilt bronze with excellent economic utility. The iron Buddha statue was the result of the time in late Silla Dynasty period that generated a new sect of Zen Buddhism based on the iron productivity and the development of Buddha statue craftsmanship at the time.

Key Words : late Silla Dynasty period, Zen Buddhism, temple, architectural organization of temple, iron Buddha statue

논문 투고일 : 2017. 11. 06

심사 완료일 : 2017. 11. 19

게재 확정일 : 2017. 11. 23